

## 1. 목이 아파요

갑자기 목이 아픈 경우는 크게 나누어 염증이 있는 경우와 입안이 헐은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 중 가장 많은 경우는 흔히 목감기라 불리는 급성인두염, 급성인후두염이 많고, 세균성 감기인 급성편도염이 있습니다. 응급 질환으로는 편도 주위에 고름이 차는 편도주위농양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고름을 빼내는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목소리가 변하면서 목이 아프면 후두가 붓는 후두염일 가능성이 높는데 간혹 후두개라 불리는 후두 뚜껑이 부으면 응급 상황이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안이 허는 병 중에 가장 흔한 것은 구내 궤양이고 대개는 아프타성구내염이지만 간혹 면역질환으로 인한 구내염인 베체트병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강이 건조할 때, 음식 가시로 인해 또는 역류성후두염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 관련질병

- 급성 인후두염
- 급성편도염
- 편도주위농양
- 후두개염
- 구내 궤양

## 2. 목에 뭐가 걸려요

목에 뭔가가 걸린 듯한 불편감을 유발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목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목에는 편도 및 후두, 혀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편도결석, 염증, 종양 등이 생겨 걸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 위쪽의 코와 연관되어 무엇인가가 목으로 넘어오면서 걸림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과거에는 후비루증후군이라고 하였으나 근래에는 통칭하여 상기도기침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셋째, 목 아래쪽 식도와 연관되어 불편감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산이 식도를 통과하여 후두까지 올라와 목의 이물감, 작열감, 쓰린 증상 등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역류성후두염이라고 합니다.

### 관련질병

- 편도결석
- 구강암
- 후두암
- 상기도기침증후군(후비루증후군)
- 역류성후두염

## 3. 목에 뭐가 만져져요

목 부분에 손으로 만졌을 때 멍울이 잡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별을 통해 원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목에 만져지는 것이 정상 구조물인지 추가적 검사가 필요한 구조물인지를 감별해야 하며, 생긴 위치가 정중앙 부위인지 좌우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양측에 대칭인지도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 등 추가적 검사가 필요한 구조물로는 임파선에서 생긴 것, 침샘에서 생긴 것, 신경이나 혈관, 지방 조직이나 피부 등 연부 조직에서 생긴 것, 갑상선에서 생긴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관련질병

- 임파선 질환
- 침샘 질환
- 연조직 종양
- 갑상선결절
- 후두암
- 구강암

## 4. 목소리가 변했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게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으며 성대의 구조적인 또는 기능적인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크게 나누면 성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 급성후두염, 성대에 결절이나 폴립 등이 생기는 경우, 후두에 암이 생기는 경우, 성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인 근긴장성 발성장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관련질병

- 급성후두염
- 성대 결절
- 성대 폴립
- 후두암
- 근긴장성 발성장애

## 5. 입에서 냄새가 나요(구취)

구취는 숨을 쉴 때나 말을 할 때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증상입니다.

일반적인 구취의 원인은 입안의 세균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 분비물 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부패하면서 냄새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인들 중 20% 정도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할 정도로 흔합니다. 하지만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 중 실제 검사에서는 정상인 경우도 50% 이상에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느끼는 증상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구강건조를 유발하는 질환이나 약물복용, 치아나 치주질환, 구강내 보철물이나 틀니, 축농증(부비동염)과 같은 코 질환, 편도염이나 편도결석, 역류성식도염과 같은 위장관계 질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관지염, 폐렴, 신장질환, 당뇨, 간질환 등에서도 드물게 특징적인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관련질병

- 구강 건조증
- 치주 질환
- 부비동염
- 편도결석
- 역류성 후두염

## 6. 입 안에 뭐가 났어요

입 안에 뭐가 났다고 하는 표현은 입 안에 혹이 생겼다는 말로 쓰기도 하고 입 안에 통증이 있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입 안이나 혀의 통증은 '혀가 아파요'편을 보시고, 여기서는 혹이 생긴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평소에 없던 것이 입 안에 생긴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잘 모르고 지내던 것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을 혹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혀에 있는 맛을 느끼는 부분인 미각 유두, 혀 밑에 있는 침샘들, 턱뼈 안쪽으로 튀어 나오는 뼈의 골비대증 등이 해당됩니다. 대체로 좌우 대칭이라면 정상 구조물일 확률이 높는데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흔하게 생기는 것으로는 점액낭종, 혀의 섬유종, 유두종, 정맥기형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간단한 수술로 잘 치료됩니다. 드물지만 암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입 안에 생기는 암을 구강암이라고 합니다. 구강암은 치료가 어려운 암 중에 하나라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입 안에 혹이 생기면 이물감이 생기거나 혀를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암이라 하더라도 통증 같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아프지 않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입 안에 혹이 발견되면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경우에는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질병

- 구강암
- 구내염(구내 궤양)
- 점액낭종(하마종)



## 7. 혀가 아파요 (입 안이 아파요)

혀나 입안이 아픈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구내염, 설염, 구강 궤양 등이 흔합니다.

설염은 혀 점막에 생긴 염증을 말하고 구내염은 구강내 점막에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구내염이나 설염은 구강내 점막의 전반적인 염증인 경우도 있고 특정한 부위에 국한된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나 보철물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나, 전신의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에 흔하게 생깁니다.

구강 궤양은 구강내 점막의 한 부분이 주변에 비해 일정한 깊이로 파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구강 궤양은 염증이 한 형태인데, 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만 1-2주 내로 아물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3주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거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에는 구강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직검사를 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이 통증이 있는 경우를 구강작열감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 관련질병

- 구강암
- 구내염(구내 궤양)
- 구강작열감증후군

## 8. 혀가 짧아요

혀가 짧다는 것은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혀를 내밀 때 혀 끝의 가운데 부분이 나오지 않아 혀 끝이 3자 모양으로 된 경우, 'ㄷ', 'ㄹ'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혀가 짧다는 것은 실제로는 혀 아래에 있는 설소대라고 하는 주름이 짧은 것을 말하는데, 설소대단축증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라면서 좋아지거나 적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경과를 지켜보거나 언어 치료를 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 관련질병

- 설소대단축증